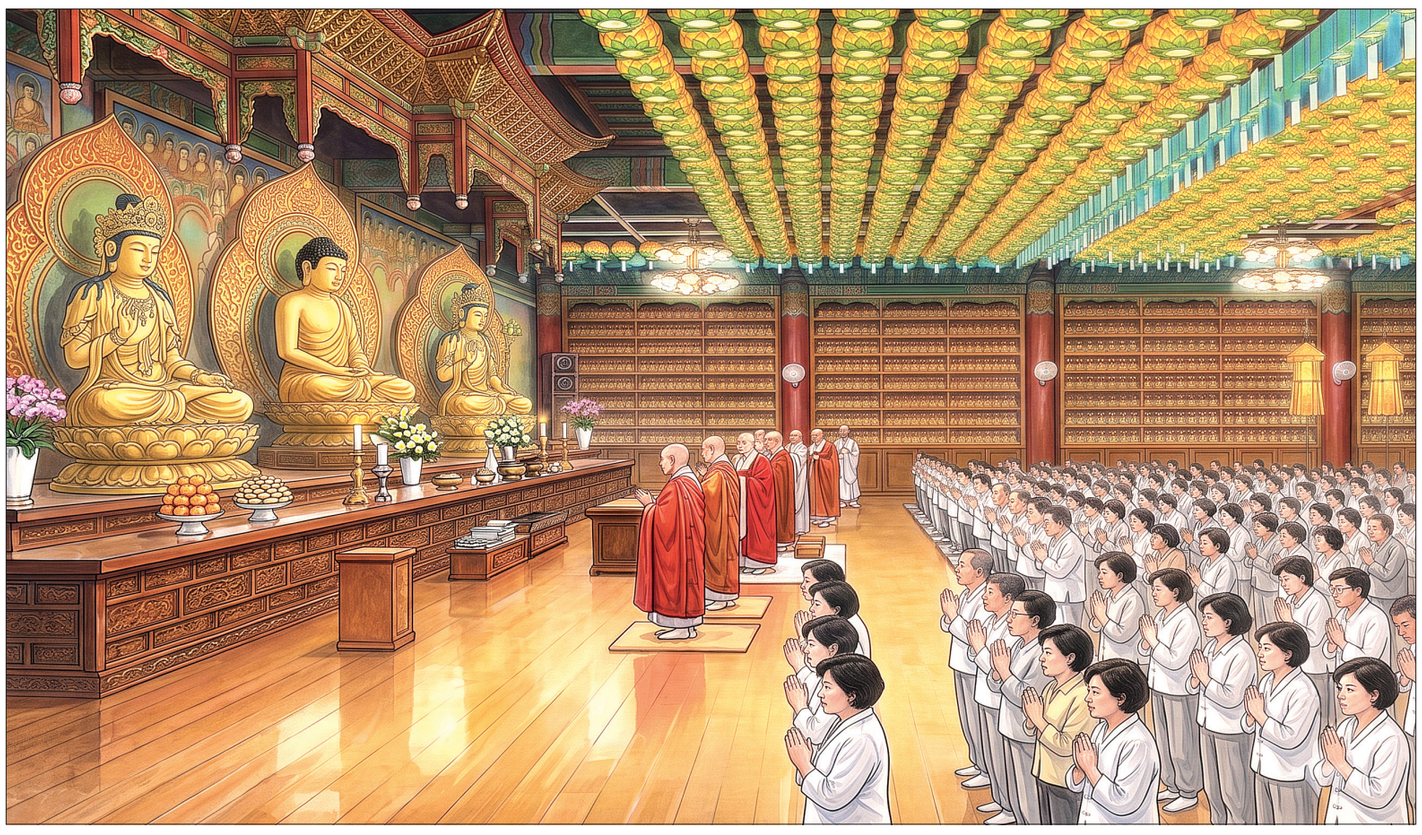
정법 전승과 깨달음 향한 동반자

금강스님의 계율 이야기

⑧ 불교의 호법신장(외호자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婆蹉白佛 置比丘尼 有一優婆塞(優婆夷)修諸梵行 於此法 律度狐疑不.

佛告婆蹉 不但一 二 三 乃至五百優婆塞(優婆夷) 乃有衆多優婆塞(優婆夷)修諸梵行 於此法 律斷五下分結 得成阿那含 不復還生此.

바차 종족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비구는 놓아두고, 혹 어떤 우바새(우바이)로서 이 법과 율에서 모든 번뇌를 없애고…(내지)… 후생에는 몸을 받지 않을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바차 종족에게 말씀하셨다. "다만 하나 혹은 둘, 셋 나아가 5백 명의 우바새(우바이)뿐만이 아니다. 많은 우바새(우바이)가 모든 범행을 닦고 이 법과 율 안에서 욕계의 다섯 가지 결박[五下分結]을 끊어 아나함(阿那含)을 얻으며 다시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 〈잡아함경〉 권34 '출가경' –

사찰을 방문하면 우리는 서로 합장하며 인사한다. 합장은 출가자와 재가자를 가리지 않고 행하는 사찰의 인사법이다. 깨달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에 합장과 함께 "성불합시다" 또는 "성불하세요"라고 인사하는데, 여기에는 깨달음을 이루어 부처가 되기를 바라는 서원이 담겨 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불교 공동체는 출가자와 재가자로 구성되며, 이를 사부대중이라 부른다. 출가자와 재가신자는 서로 의지하며 공생(共生)하는 관계다. 붓다께서 깨달음을 성취하기 전 공양을 올린 이도 재가자였고, 깨달음을 성취한 뒤 붓다의 설법을 듣고 처음으로 불교에 귀의한 따뿟사와 발리까 역시 재가신자였다. 이처럼 재가신자는 불교의 시작부터 함께해 왔다.

불교가 인도 사회에 정착하고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준 대표적인 재가신자는 빔비사라왕이다. 빔비사라왕은 붓다께 포살과 안거를 제안하고 최초의 사원인 죽림정사를 기증했으며, 평생 불교를 후원하고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했다. 출가자가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 정진하며 깨달음을 추구한다면, 재가신자는 불교를 후원하고 사회 속에서 그 가르침을 실천한다. 재가신자에게 불교는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길이면서, 더 나은 삶을 지향하며 선업을 쌓는 길이기도 하다. 재가신자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불법을 외호하며, 승가 구성원에게 공양과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교단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가신자는 불법을 지키고 전하는 중요한 외호자라 할 수 있다.

불교 교단의 기본 구성원인 사부대중은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를 말하며, 각자는 자신의 역할에 따른 본분을 실천한다. 불교에 귀의한 남성 재가신자를 우바새(upāsaka, 優婆塞), 여성 재가신자를 우바이(upāsikā, 優婆夷)라고 부른다. upāsaka에는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 '존경하고 섬기는 사람'이란 의미가 있다. 중국의 현장 스님은 이러한 뜻을 살려 '가까이 모시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근사(近事)로 한역하고, 남녀를 각각 근사남(近事男)과 근사녀(近事女)라 했다. 우바새와 우바이는 삼귀의와 오계를 수지함으로써 사부대중의 정식 구성원이 되고, 승가와 더불어 불교 교단의 한 축을 이룬다.

재가신자는 불교를 후원할 뿐 아니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의 과(果)를 성취할 수도 있다. 〈잡아함경〉 권34 '출가경'에 따르면, 부처님의 가르침과 율에 의지해 다섯 가지 하분결, 곧 유신견(有身見), 계금취견(戒禁取見), 의심[疑], 욕탐(欲貪), 진에(瞋恚)를 끊으면 아나함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속가에 머물며 자식을 기르고 세속의 즐거움을 누리더라도, 가르침과 율에 의지해 수행하면 수다원(須陀洹)이나 사다함(斯多含)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한다. 전통적으로 재가신자는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제외한 세 가지 성자의 과를 성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밀린다왕문경(나선비구경)〉에서 나가세나 비구는 재가신자가 아라한과를 성취하면 그날 바로 출가하거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 재가신자, 교단 후원과 불법 전승·수호
> 바른 계행과 수행으로 깨달음 성취 可
> 오계 받아 모두 지키는 것이 기본 자세
> 먼저 지킬 수 있는 계부터 충실히 실천

Abhikkantaṃ bho Gotama, abhikkantaṃ bho Gotama. Seyyathā pi bho Gotama nikkujjitaṃ vā ukkujjeyya, paṭicchannaṃ vā vivareyya, mūḷhassa vā maggaṃ ācikkheyya, andhakāre vā tela-pajotaṃ dhāreyya : cakkhumanto rūpāni dakkhintîti, evam eva bhotā Gotamena aneka-pariyāyena dhammo pakāsito. Esâhaṃ Bhagavantaṃ Gotamaṃ saraṇaṃ gacchāmi dhammañ ca bhikkhusaṃghañ cam upāsakam maṃ bhavaṃ Gotamo dhāretu ajjatagge pāṇupetaṃ saraṇaṃ gataṃ.

時種德婆羅門白佛言 : 今我歸依佛 法 聖衆 唯願聽我於正法中爲優婆塞.

自今已後 盡形壽不殺 不盜 不婬 不欺 不飮酒.

세존 고타마시여, 미묘하십니다. 세존 고타마시여, 미묘하십니다. 마치 넘어진 것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 방황하는 자에게 길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눈이 있는 자는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며 어둠 속에 등불을 들고 오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고타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저는 세존 고타마께 귀의합니다. 법과 비구 승가에 귀의합니다. 세존 고타마는 저를 '지금부터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귀의하는 우파사카'로서 섭수하여 주십시오.

– 〈디가니까야〉 '소나단다경(종덕경)' –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바른 계행이 중요하다. 재가신자의 계행은 오계를 받고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 오계는 '불살생·불투도·불사음·불망어·불음주'로 표현되며, 흔히 '불(不)'을 '하지 말라'는 금지의 뜻으로 풀이해 계행의 실천을 강조한다. 그러나 계문에 쓰이는 'veramaṇī'는 단순한 금지를 넘어 '멀리 떠남', 곧 악한 행위에서 스스로 벗어나겠다는 자발적인 결의를 뜻한다. 누군가의 강요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악을 짓지 않고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살린다면 '떠날 이(離)' 자를 써서 '이살생·이투도·이사음·이망어·이음주'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재가신자는 원칙적으로 오계를 모두 받고 실천해야 한다. 다만 붓다의 열반 이후 불교가 발전하면서 재가신자의 삼귀의와 오계 수지에 대한 관점도 다양해졌다. 특히 부파불교 시대에는 실천할 수 있는 계목만 선택해 받는 부분수계[分受]에 관한 논의가 나타났다.

재가신자의 부분수계를 잘 설명하는 논서는 용수보살이 저술한 〈대품반야경〉의 주석서 〈대지도론〉이다. 이 논서에서는 오계를 모두 수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면서도 부분수계를 함께 설명한다. 오계 가운데 한 계만 받으면 일분행(一分行) 우바새, 두 계 또는 세 계를 받으면 소분행(少分行) 우바새, 네 계를 받으면 다분행(多分行) 우바새, 다섯 계를 모두 받아 실천하면 만분행(滿分行) 우바새라 한다. 또한 재가신자가 음행을 완전히 끊으면 단음(斷婬) 우바새라 하는데, 이는 단지 '불사음'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음행을 끊은 경우를 뜻한다. 〈대지도론〉은 이처럼 계를 수지하는 방식에 따라 우바새를 다섯 유형으로 설명한다.

모든 계를 받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가신자의 모습이다. 비구에게 적용되는 이부정(二不定)이라는 처벌 조항에는 '믿음이 있는 우바이'가 등장한다. 이는 삼보를 믿고 오계를 실천하며, 사건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진실하게 말하여 그 증언이 허망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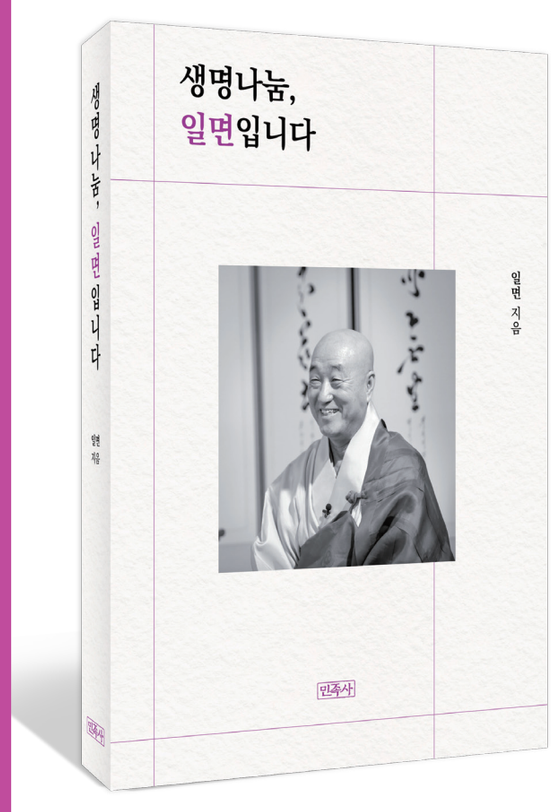
이처럼 오계를 받아 지키는 것은 재가신자의 기본적인 자세이다. 그러나 오계를 모두 받아 실천하기 어렵다면, 〈증일아함경〉 권20 '성문품'에서 설명하듯 실천할 수 있는 계는 지키고 실천하기 어려운 계는 '봉(封)해 둔다'는 태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곧 당장 실천하기 어려운 계는 마음속에 봉해 두고, 먼저 지킬 수 있는 계부터 받아 충실히 실천하는 것이다. 자신이 받은 계를 성실히 지키는 것이 바른 지계이며, 바람직한 재가신자의 모습일 것이다. 오계의 실천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고, 재가신자는 수행을 통해 성자의 과를 성취할 수 있다. 경전은 재가신자에게도 깨달음의 길이 열려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승가와 재가로 이루어진 사부대중은 각자의 자리에서 불교를 지키고 전승하는 동시에,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다.



금강 스님
해인총림율학승가대학원
대학원장 직무대행

한 생을 돌아보니, 모두가 은혜였습니다
덤으로 얻은 생명에서 나눔의 길로, 수행과 자비로 채운 80년의 여정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이 모두 부처님이었음을"



『생명나눔, 일면입니다』

2000년 1월 8일,
죽음의 문턱에서 간 이식으로 두 번째 삶을 얻은 일면 스님.
스님은 그날 이후의 삶을 '덤으로 얻은 생'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로 생명나눔의 삶을 걸었습니다

일면 지음 | 352쪽 | 17,500원

교보문고 바로가기



도서출판민족사 | 02-732-2402 | www.minjoksa.org